고린도후서 강해

AN EXPOSITION ON THE APOSTLE PAUL’S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2판-수정중〕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1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담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에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레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온 것이라고(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내용 목차

서론 ................................................................. 6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 7
2장: 사랑과 승리의 직분 ........................................... 17
3장: 새 언약의 직분 ................................................. 22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 28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 34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 46
7장: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 52
8장: 풍성한 헌금 ..................................................... 58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 64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 ........................................... 69
11장: 고난의 수고 ................................................... 74
12장: 사도의 표 ....................................................... 83
13장: 권면과 축도 ................................................... 93
고린도후서 서론

서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초대교회의 폴리갑,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등은 본 서신을 자주 인용했다. 본 서신 내용의 세부적 성격과 그 자연스러움과 생생함은 그것의 순수성을 잘 증거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심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10, 11장).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고린도를 방문했으나 그 노력은 실패했고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의 주동자는 그를 크게 모욕했던 것 같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한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다(2:3-4; 7:6-16).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쓰여진, 지금은 없어진, 한 편이었던 것 같다.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온 디도가 보고한 내용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나에 있었고 거기에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다(2:13; 7:5-8; 8:1; 9:2-4). 그렇다면 본 서신의 저작 시기는 주후 54년 혹은 55년 말경이었던 것이다.1)

고린도후서의 특징적 내용은 사도의 직분에 관한 것이다. 1-7장은 위로하고 기쁨을 듬는 직분, 사랑과 승리의 직분, 새 언약과 성령과의 직분, 낙심치 않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등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에 대하여 말하고, 8장과 9장은 현금에 대하여 교훈하고, 10-12장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고, 마지막으로 13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축도이다. 본 서신은 특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한 서신으로서 개인의 간증적 내용을 담고 있다.

---

1) 메이천, 신약개론, I, 208-211쪽.
고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1-11절, 위로의 직분

[1-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결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괴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이 길로 이끄셨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입었고 (롬 1:1)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고전 1:17). 그는 사도로서 1:3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 디모데’가 있었다. 그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의 형제로 바울의 조력자가였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빌 2:22).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였다. 고린도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교회는 그전 인간적 단체들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려내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아가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한다. 사실, 교회는 아담 이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의 구성
원은 ‘성도’(聖徒), 즉 거룩한 자들이라 불린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이다. 그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썩어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나 동시에 우리가 범죄할 때 정제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곧 우리와 온 세상의 주인, 주관자, 왕,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했다. 사람의 호의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곧 값없이 주시는 호의는 우리를 죽과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성화(聖化)와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전반을 도우실 수 있는 큰 복이다. 또 하나님의 ‘평안’도 세상에서 매우 큰 복이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회적 안정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이다. 그것은 삼상 천국의 특징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천국의 복의 시식(試食, 맛보기)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평안은 그 구원의 결과이다.

[3-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하나님과 아버지)(원문)이시요 자비(자비들)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 받는 위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늘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요다.

예수께서 하나님하시며 사람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
고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회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라”고 말씀하셨다(요 20:17).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들의 아버지’이시다. ‘자비들’이라는 원어는 많은 자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이시다. 또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이시다. 위로는 본문의 중요한 주제이다 (3-7절에 10번 나온). 이 세상은 슬픔과 환난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큰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신다. 외아들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올던 나인성 과부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위로해주셨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심히 크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셨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으나 위로도 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의 영육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의 위로이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고통과 순교의 길을 통과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것은 그들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고난 중에 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7절) 그리스도의 고난(고난들)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는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매는 자가 된 것같이
고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위로에도 그나 할 줄을 앓아라.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묘된 교회를 위해 받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도 넘치게 경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고난들도 허락하시지만, 결단코 자기 백성을 미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작정하신 때에 풍성한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신다.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 아니라, 특히 남을 돕는 데 유익하다.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고난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환난 중에 사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는 오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말은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확실하다는 뜻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위로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8-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끝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한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였고 살 소망까지 끝이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앞에까지 간 환난이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때이었다. 그는 그것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쳐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위로의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일대일로 서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살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쉰위푸르군톤 σω-ν-υπουργούντων)에 또한도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2) Byz vg Origen 등이 그러함.
고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원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돕고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KJV, NASB). 성도들은 복음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협력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복음 사역자들 자신들의 기도뿐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협력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게 이루게 할 것이다. 에베소서 6: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으셨고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고 여기셨고 영생을 주셨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늘 사모하며 받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화의 원동력이며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복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들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다. 고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함으로써 곤단 받는 사람들들을 위로하는 자가 된다.

넷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겪손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익이 있으며, 특히 극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만 의지하게 한다.

다섯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그 일꾼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다. 복음 사역과 그 일꾼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게 이룰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12-24절, 기쁨을 돕는 직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했다. 또 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육체의 지혜는 이기적이며 계산적이다. 그것은 결 보기는 그럴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실한 척하나 진실이 없고, 의로운 척하나 의롭지 못하고, 사랑하는 척하나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 안에서 형제된 다른 교우들을 대할 때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사람의 뜻이나 세상적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단순하고 솔직하며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심정은 편지로 다 표현되었다. 그들이 읽고 아는 것이 그의 마음 전부이었다. 그 이상의 것도, 그 이외의 것도 없었다. 숨겨진 다른 마음은 없었다. 이것이 단순함과 솔직함이다. 오직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신이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원하였다. 참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전도자들에게 영광과 자랑이 될 것이며, 또 전도자들도 그들에게 영광과 자랑이 될 것이다.

[15-20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두 번째] 은혜를 얻게

3) Byz UBS it ε vg syr P 등.
가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하지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떤 경험이 하였으리오? 혹은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나.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의 본래 여행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냐로 가고 그 후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의 이 여행 계획은 쉽게 ‘예’하고 쉽게 ‘아니오’하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육신적, 인간적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시며 진실하시듯이 자신의 말도 경솔함이나 불신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솔하게 예 하고 아니오 하는 분이 아니셨다. 그는 불신실하신 분이 아니셨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는 말은 ‘오직 저에게는 예가 있었다’는 뜻이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예’ 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이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였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 곧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의 약속이며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다. 그것은 영육의 복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코 훼손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며 아멘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21-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의 사니 저희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님이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말한다. 우리의 구원은 작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의존한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음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내주(内住)하심을 가리킨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거하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기관들과 기능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한다. 성도의 구원의 보장은 삼중적(三重의)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과 그의 중보사역의 효력이며, 셋째는 성령의 인치심이 다. 본문은 이 세 번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의 변경을 해명하면서 자신을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겸손히 표현하였다. 이단자들이나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뿐이시다.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주관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보증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로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속죄 신앙에 굳게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살며서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서는 신실하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치셨고 구원을 보증하셨다.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요일2:27). 성령께서서는 우리의 위로자와 돕는 자이시다. 그는 우리를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그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의뿐이시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로 처신하며 겸손히 그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사랑과 승리의 직분

2장: 사랑과 승리의 직분

(1-3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같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 오너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근심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교인들은 목사의 기쁨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4:1에서 말하기를, “그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근심은 그의 근심이 된다. 성도의 기쁨은 목사의 기쁨이요 성도의 근심은 목사의 근심이다. 또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임도 확신한다. 목사의 기쁨은 또한 성도들의 기쁨이다.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외적으로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애통과 근심이 있었다. 그의 애통과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왔고 그러므로 그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었다. 바울의 사역은 눈물이 있는 사역이었다. 그는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하였고 또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였다(행 20:19, 31).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그의 뜨겁고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사랑이 아니라면 눈물의 책망의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책망은 감추인 사랑보다 낫다.

(5-6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희 무리 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죽도하도.

‘근심하게 한 자’는 범죄자를 가리킨다. 바울은 그로 인해 근심했으나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케 한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고린도 교회는 범죄자를 권징하라는 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이 그 권징에 반대했을지도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찬성하고 그 범죄자를 벌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권징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의 권면을 순종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사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권면을 따랐다. 그 교회는 참된 신앙고백과 순종이 있는 교회이었다.

(7-9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을 저희에게 저자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권징은 별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죄인의 회개를 목표로 한다. 권징치 않으면 죄 가운데 머물 형제를 권징을 통해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권징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 범죄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후 그를 풀어주듯이, 그는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한다. 오늘날도 교회는 권징이 있고 용서와 위로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고린도후서 2장: 사랑과 승리의 직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새 계명을 어기기 를 원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새 계명에 복종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정이 마음의 표현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 서 행해진 것임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 범죄하는 자를 징벌하는 교회 에 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범죄자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그의 권면을 순종하라고 기대한다. 아니 이 권면 뿐 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들이기를 기대한다. 교회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0-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뇌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 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례를 알 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교회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해벌(解罰)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앞 에서 행해진다. 주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요 땅에서 쌓면 하늘에서도 폐리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8:18). 사탄 은 범죄자로 하여금 너무 근심하게 함으로 낙망케 하여 믿음에서 떠나 게 하려 할 것이다. 사탄의 궤계는 첫째, 성도를 범죄자 하는 것과, 둘째,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범죄자에 대한 징벌 도 필요하지만 회개한 자에게 주는 용서와 위로도 필요하다. 사탄은 죄인에게 속박과 근심과 낙심을 주지만, 주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 하여 그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12-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주 안에서 열린 ‘문’은 진도의 문이다.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 야 된다. 진도는 하나님께의 손에 달렸다. 드로아에서 진도의 문이 주 안에서 바울에게 열렸고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이 편치 못해 그들을 착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알리는 향기라는 뜻이라고 본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삼상 8:6, 14),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에서 그들이 항상 이기게 하셨다. 그의 사역은 과연 중에서도 항상 승리적이었다. 오늘날도 진리의 사역은 항상 승리적이다. 불순종과 죄는 실패의 원인이지만, 순종과 의는 항상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15-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좋은 사망에 이르는(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로) 저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이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다. 그러나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전도는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직무이며 두렵고 멸리는 직무이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을 나누고 영생(永生)과 영벌(永罰)을 나누기 때문이다(요 3:18).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뿐이다.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의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한다’는 원어(카펠루오 καπηλεύω)는 ‘장사한다, 품질을

4) Byz latt syr Irenaeus 등이 그러함.
떨어뜨린다, 부패시킨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라는 원어 (호스 에크 테우 ως ἐκ Θεοῦ)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같이’라는 뜻인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절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같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였다. 그는 말씀의 바른 일꾼이었고 모든 시대에 실교자의 좋은 본이 되었다. 말씀의 일꾼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교회는 범죄자에게 눈물과 사랑의 권면과 책망과 권징을 해야 한다. 교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바로 살 때 그것은 목사에게 기쁨이 된다. 목사의 기쁨은 교인들이며 교인들의 기쁨은 목사이다. 그러나 범죄자는 목사에게나 교인들 모두에게 슬픔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범죄자에게 권징을 내리지만, 회개하고 돌아킨 자에게는 용서와 위로를 주며 너무 낙심치 않게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널리 풋겨야 한다. 예수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의 구속(救贖)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며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거나 부패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집하지 말고 바르고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 읽기와 연구하기와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집하지 말자.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

3장: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신임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서도 다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나 목사들이 쓴 추천서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스스로 추천 하거나 누구의 추천서를 그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었다. “너희가 우리 의 편지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뜻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므로(행 18:11) 고린도 교인 들은 그의 인격과 사도 팀과 충성함을 잘 알 수 있었다.

그 추천서는 종이에 쓰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의 마음에 쓴 것이었 다. 그것은 종이에 쓴 것보다 더 생생하였다.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 은 종이에 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 일행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 속에 쓰여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편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증거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편지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시고
확증하시는 편지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이었다. 그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살아 역할하시며 증거하시다. 그 편지는 돌판이나 종이에 쓰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것이었다. 성령께서 쓰신 이 추천서는 바울의 마음판에도 쓰였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도 쓰였다. 마음판에 쓰인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돌판이나 종이에 쓴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편지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 같은 확신이 오직 하나님이서 났다고 고백한다.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속에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전도와 목회의 사역과 그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된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옛 언약 곧 구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주어졌고 새 언약 곧 신약은 복음의 형식으로 주어졌다. 구약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강조했으나, 신약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강조한다. 구약 아래서도 제사 제도나
성막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었다. 그러나 신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증거된다(요 1:17).


[7-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성령]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복음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과 글의 사역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전도자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목사들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목사들은 그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죽게 하는 율법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다면,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는가!

한다. 전도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사역이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

(10-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던 곳 가지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은 더 큰 영광이 있다.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구약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도께서 오실 때까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이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한계가 없고 폐지되지 않는 영속적인 영광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義)의 영광이다.

(12-16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이 결의 결국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님이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 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얼굴에 강채가 났다(출 34:29-35). 그러나 그는 말을 마친 후 그의 이마에 수건을 움직어 그 없어질 강채를 가리였다. 그것은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이며 장차 나타날 참된 실제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약시대에는 그 수건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적(儀式的) 율법의 내용들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할 때이다. 복음 사역은 수건을 쓰지 않는 사역, 즉 가려진 것이 없는 사역이다. 복음의 진리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

는 은밀하지 않고 밝혀 드러난 진리, 공개된 진리이며, 그 영광은 여겨지지 않는 영속적 영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다. 그 수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상징들에 대한 무지와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율법주의 사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실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다. 기독교 복음은 은밀히 감추인 것이 없다.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지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받는 작은 빛에 불과하며 우리의 성화는 심히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으며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의 영광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롬 8:29-30).


고린도후서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1-2절)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호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 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활 가운데 행하지 아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앞 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노라.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사도직의 한 면모인 ‘낙심치 않는 직분’에 대해 말한다. 그는 앞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새 언약의 직분이요 성령 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공호하심 가운데 그런 직분을 받았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일했다. 그는 죄악 된 숨은 부끄러운 일이나 거짓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케 하거나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하였다. 이 사실은 고린 도 교인들도 잘 아는 바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표현하였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 성경적 복음을 가감하지 말고 단단히 전해야 한다.

[4-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 못하게 할이나 그리스도는 하 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탄과 악령들의 방해를 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킨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고(요 12:31)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다(엡 2:2).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애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 오늘날도 사탄의 방해가 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전 3:7).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애들이 시요 우리의 주이시며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은 그에게 절대적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할 종의 위치에 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디아 이호수ν)[예수님 때문에]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을 교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지만, 교회와 교인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려 하였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애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셨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 다. 태초에 하나님의에서는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였다. 창조자 하나님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남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놀라운 지식과 믿음이 죄인들에게 투신이 된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요 인생의 불행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다.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는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깨닫고 받고 믿은 신약 성도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과 같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몸을 말한다.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며 성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며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지식과 믿음, 의와 생명,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졌을 뿐 있다.

[8-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짊반이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예수님의 죽음은 뱀에 젖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낙심치 않고 잘 감당했음을 증거한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부서지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다. 그는 짊반이도 버린 바 되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은 뱀에 젖어지듯이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다.
고린도후서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항상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다.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은 죽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믿음에 근거 세우는 사역이었다. 고난은 있었으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 건립과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참 목사들은 고난이 있어도, 그들을 통해 생명 구원과 성장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4-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일행의 모든 사역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께서는 그와 함께 사도 바울 일행도 그 고난에서 다시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 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었고, 완전이 그리스도 외의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이 우리 안에 감춰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신 그리스도께서 나

5) Byz syr 등이 그러함.
고린도후서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고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걸 사람은 곧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고 병들고 쇠하고 마침내 죽는다. 그것은 많은 고난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묘사하였다 (고전 15:31). 속 사람은 영 혹은 영혼을 가리킨다. 성도의 영혼은 그 지식이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와 성결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의 위로가 더하고 천국 영광의 소망이 더욱 새로워진다. 그의 걸 사람 곧 몸은 낫지지만 그의 속 사람은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치 않는다. 또 그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바울은 성도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한다. 그는 현재의 고난이 잠시 받는 것이며 비교적 가볍다고 말한다. 그것이 수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극심하고 극악한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누릴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며 지극히 크다. 현재의 영광은 일시적이며 수십 년을 넘기지 못하지만, 장래의 영광은 영원하다. 바울은 로마서 8:18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 곧 물질 세계를 위주하여 삶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위주하여
고린도후서 4장: 낙심치 않는 직분


고린도후서 4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소식이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탄이 그 눈을 어둡게 함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한 주시면서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복음을 깨닫고 믿었는가?

둘째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며, 거기에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있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몸은 쇠퇴가고 고난 중에는 더욱 그러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지식과 깨달음이 자라고 인격과 삶이 성숙해진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잡시 받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 물질적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1-10절, 하나님의께서 지으신 집

[1-3절]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암이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덮임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벼른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는’이라는 말은 앞장 끝에서(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한 이유를 보인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은 현재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 그것을 천막집이라고 부른 것은 임시적이고 영구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벽돌집은 비교적 영구적이지만, 천막은 그렇지 않다. 천막은 보통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치는 것이며 사용 후엔 걷어서ねぇ 두거나 옮겨서 다른 곳에 친다.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영구적이지 못하고 얼마간 쓰면 떨어지고 쇠해질을 표현한 것이다. ‘장막 집이 무너지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켰다. 천막을 걷어 분해하여 보관하듯이, 사람이 죽어 몸이 땅에 묻혀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은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썰어 흙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께서로 돌아간다. 전도서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잠蕞의 혼은 아래 곤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몸을 떠난 성도의 영혼은 있을 곳이 아니여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거처할 곳을 얻게 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성도가 죽은 후 그 영혼이 들어가 거처할 천국을 가리킬 수 있다. 성도의 영혼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몸의 죽음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 부활 때까지 안식할 것이다.

- 34 -

고린도후서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많은 세상이 지나가고 속히 새 세계가 오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다.

[4-5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지금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있으으면서 탄식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떠나고자 함이 아니다. 성도의 소원은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워 단지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영혼의 탄식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고자 하는 탄식이다. 그 생명은 천국의 생명이요 영광스런 생명이다. 다시 말해, 영혼이 지금 탄식하는 것은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탄식인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이시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도는 그 속에 계신 성령의 활동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천국의 산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성도의 구원 확신은 성경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경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6-7절] 이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담대하며)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는 말은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므로 우리가 영광의 구원, 곧 내세 천국을 담대히 확신한다는 뜻이다. 또 우리는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주와 함께 있지 못하고 단지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와 함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과 교제하되 보는 것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한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는 것’은 영혼이 몸 안에 거하는 것 곧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요, ‘떠나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 곧 몸의 죽음을 의미한다. 성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곧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급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주의 뜻대로, 즉 성경의 진리와 교훈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곧 경건한 삶이요 의와 선과 진실의 도덕적 삶이다.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데(받을 것임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상급은 우리의 행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상이 다를 것을 보인다. 사실, 사람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눅 17:10; 계 4:10).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행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께서는 우리의 행에 대해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는 우리의 부족한 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실상, 우리의 행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상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임들에 충성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도에게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것은 천국과 몸의 부활체를 가리킨다고 본다. 성도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린다. 그러다가 주의 재림 시에 영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일, 곧 주의 재림 때의 일이다.

둘째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원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죄성이 없고 범죄 가능성 없는 상태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기쁜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상을 기대하면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만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한가지 뿐이다. 그것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거기에는 상이 따를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11-21절, 대속(代贖)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의 두려우심’이란 앞절에 말한 대로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보응하시니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죄짓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힘쓸 것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는 말은 사도 바울 일행이 범사에 하나님의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삶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졌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을 고린도교회 앞에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그가 진실한 종임을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다.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도 악한 데 허풍으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한 것인가!

[13-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의 앞에 알리워졌지 아니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보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열심 있는 성도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것같이 보인다. 그들은 그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상 아무리 성도가 열심을 낼다 하여도 하나님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지만(신 6:5),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의 70퍼센트, 아니 50퍼센트도 하나님의 사랑에 못할 때가 많을 것이다.

열심 있는 성도가 미친 것같이 보여도 실상 그는 미친 것이 아니다. 성도는 결코 미쳐서는 안 된다. 온전한 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이다. 기독교는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모든 정신을 가진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때나 인간 관계에서나 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성도의 미친 것 같은 열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원함 때문이이다. 성도는 그 사랑 때문에 편박 중에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의로워하지 않으며, 물질적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그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십자가 대신(代贖)의 사랑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예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스런 죽음에 내어주셨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누하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되어 마지막 심판이나 지옥 형벌이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 백하신 모든 사람만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하신 자들이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 개념이다. 속죄는 속죄물이 실제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2천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성 밖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실제로 죽은 것과 같았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으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람의 대상이 된 자들,
고린도후서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곧 그가 매우 귀하게 여기신 자들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특별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야 할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정도로 알았었다(막 6: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영광스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다(고후 46).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전통사본) 되었도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전의 것들, 곧 죄악된 것들, 정죄된 것들, 허무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말은 전통사본에는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는 새 생명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께로 냐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6) Byz vg cl arm Origen 등이 그러함.
직분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또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의 많은 죄들을 그들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았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화목케 하는 말씀이 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이화목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 예수님께서 피흘려 사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다. 화목케 된 자들마다 죄세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使臣)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하라.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使臣)’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위해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과의 화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다.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인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고린도후서 5장: 화목케 하는 직분

이 하나님과 화목하였는지 살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교회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수가 얼마나든 지 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사랑을 감사하자. 한 사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요 3:16; 롯 5:8; 요일 49-10).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8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하였다.

셋째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죄사함과 화목의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롬 5:1-2; 히 4:16).
고린도후서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1-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헛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을 주지 않도록 처신하려고 애썼다. 그의 직분이 비난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며 영혼 구원과 교회 건립의 일들에도 지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교회는 은혜롭게 진행되며 잘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도, 교회도 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평안과 건립에 해를 끼칠 것이다.

(4-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전하여(일군임을 보여주었으니) 꼭 바른 성경 같이 견디는 것과 한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린도후서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고난을 당했고 그 것을 견디었다. 경제적 어려움도, 힘박과 매맞음과 간힘 등의 육체적 고난도 있었다. 그는 때때로 어떤 이들의 반대와 배척을 받았고 소동과 소란을 경험하였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

[6-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크레스토테스 크ρηστότης[친절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바울은 법사에 깨끗하였다. 물질 관계에서도 이성 관계에서도 그러하였다. 이것은 후대의 모든 일꾼들에게 모범이 된다. 또 그는 항상 지식으로 준비되었다. 전도자는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 그는 법사에 오래 참았고 친절하였다. 또 그는 늘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성령께서는 전도자들의 힘과 위로 이시다. 또 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였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였다. 또 그는 의를 전하고 의를 세우는 도구로 일하였다. 복음 운동은 의인 만드는 운동이다. 물론 이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그 의만 의지하고 그 의를 전하고 의를 실천하는 자이어야 한다.

[8-9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짐계를 받아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도라는 그의 직분이 영광스럽지만, 바울은 악하고 거짓된 비난도 받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의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또 그의 확신 있는 교훈 때문에 그는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마치 속이는 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말한 자이었다. 또 그는 자기를 선천하지 않고 조용히 일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 47 -
고린도후서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그것들은 그를 겸비케 하고 하나님만 의지케 하는 훈련 과정이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자로이 엎음이로다].

비록 그가 성도들의 연약 때문에 근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의 확장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구원하고 흥성한 은혜와 복으로 부요하게 하는 자이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이 일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평안 가운데서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전도자의 직분은 고난으로 감당해야 할 직분이다. 그러나 비록 심적, 육체적, 물질적 고난이 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신 위로와 능력도 컸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마음을 넓여주고 그의 입도 열려 할 말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 마음이 좁아져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그의 고난의 사역을 상기시키며 아버지같이 권면한다. 그의 사역은 그들에게 그의 진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을 넓게 열고 그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이해
고린도후서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하고 그와 일치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날도 하나님의 생각이 목사의 생각이 되고, 목사의 생각이 장로들과 교인들의 생각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좁아짐이 없이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일치할 때 교회는 잘 진행하고 세워질 것이다.

(14-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헤테로취게오 ἔτεροζυγέω)[어울리지 않게(혹은 부당하게)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너희는(전통사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아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명예를 같이하지 말아야 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쓰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죄에게 종이 되어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된 욕심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명예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


7) Byz p46 C 등이 그러함.
고린도후서 6장: 고난으로 감당하는 직분

될 수 없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소유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시고 하나님의께서 주신 구원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고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멸망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일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성도들의 교제 전반에서 적용될 원리이다. 믿는 자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나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교제는 주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어야 한다(요일 1:3).

[17-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로부터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적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길어야 한다. 순종하는 형제들 간의 분리는 죄이지만, 불신자들과의 교제 단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밝히 교훈한다. 로마서 16:17-18,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성도의 교제는 믿는 자들 간의 교제이어야 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성도 상호간의 사랑을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원인은 가나안 정복 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던 까닭이었다(삿 1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포용함으로 그 우상숭배를 본받게 되었고 부패되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인으로 포용하고 성도들이 그들과 교제할 때 교회는 속죄되고 부패되기 시작할 것이다. 무분별한 교제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작은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시킨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된 회(會)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아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죄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까지 그는 아직 교회의 참 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를 교회의 직분자나 붙사자로 세우거나 그런 자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려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명확히 구별된다(요일 3:10). 세상과 교회의 선이 명확할 때 교회는 강력한 단체가 될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특권이요 혐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될 때 교회는 맛 없는 소금이 되어 결국 세상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와 악을 버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모든 성경 교훈을 온전히 순종하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고난으로 감당해야 한다. 우리 주님의 지상 생활은 고난을 통과한 삶이셨다.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은 환난, 궁핍, 매بات, 수고, 비방을 당했던 사역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고난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망어를 같이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믿는 자와의 교제가 중요하다. 악은 누룩 같이 퍼진다. 잘못된 교제는 신자 개인과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킨다. 우리는 잘못된 교제를 피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7장: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은 앞에서 말한 바(6:18)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요 1:12). 우리는 장차 의인의 부활 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록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는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지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 곧 성화의 목표이다. 비록 완전 성화가 끝 위에 사는 동안 불가능할지라도, 성도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 달음절해야 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란 우리가 육신적 죄뿐 아니라, 심적 더러움, 예를 들어 미움, 음란한 마음, 물질에 대한 탐욕 등에도 빠지지 말여야 할 것을 보인다.

[2-4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빚았던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악한 비난으로 인해 생긴 간격을 벌리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모세나 사무엘도 백성의 나귀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민 16:15; 삼상 12:3). 디모데전서 3:8은 집사의 자격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직분자는 그래야 한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과의 일치된 마음과 사랑으로 생사(生死)를 같이하기를 원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남대함과 자랑은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남대히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남대함과 자랑대로, 그의 사랑과 신뢰대로, 바울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 그는 6, 7, 13절에서도 자신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5-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타페이누스 ταπευοντος[낙심한 자들](KJV, NASB, NIV)을 위로하시자는 하나님이 디도로의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은 것뿐 아닙니오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정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전도 활동은 육신적 휴식이 없는 활동이었다.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펽박과 이방인 우상숭배자들의 펽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인간적 연약과 두려움이 있었다.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길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 충성되어 일하려 하다가 힘이 빼지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것은 그의 협력자 디도가
고린도후서 7장: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그들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에 대한 좋은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이며 기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만 바라며 때때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 하시는 하나님의시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을 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신다.

(8-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앓으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서 범죄자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이 너무 심하여 그들이 낙심했을까봐 후회했으나, 그것이 그들을 잠시만 근심케 한 줄을 알고 이제 후회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근심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르러 바울에게 어떤 징계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범죄한 자를 포용한 문제에 대한 책망이 그 범죄자와 교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 즉 의식주의 염려, 건강의 염려, 경제의 염려, 사회 환경의 불안 등이다. 이런 근심
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근심을 버려야 한다. 누가복음 8: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2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되고 뜻밖에 그 날이建て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버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것만 근심해야 한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 있게 하며 얼마나 염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간절했고 그들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 변명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의문했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었고 약한 자를 벌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미련한 자는 교훈과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순히 받는다. 잠언 1:7, "미련한 자는 지혜와 축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책망을 듣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조심하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면 받아들여 고치면 될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을 절순히 받았다.

(12-13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행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 55 -
바울의 편지의 결과,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진심함과 간절함이 확인되었다. 편지를 통한 그의 책망은 그들의 회개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았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던 디도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 안심함과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 말씀의 봉사자의 위로와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온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착된 것이 있기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되게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말했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 말한 말도 참된다고 증거한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바르고 참된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 야고보서 3:1-2,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15-16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끝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봉음사역자 디도를 두려고 멀리하여 영접하였고 그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이다.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마 10:40; 25:35-40). 요한 삼서에 보면, 디오드래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오름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이었다. 그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려는 진실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쫓기까지 하였다.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 사도 요한은 그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하고
고린도후서 7장: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우지 못하였느니라”고 교훈하였다(11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의심정은 그들의 진실한 영결과 순종을 인해 더욱 풍성해졌다. 복음의 일꾼이 주의 백성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볼 때 그들을 향해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디도의 이런 보고를 받은 바울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 복음사역자들에게 고난과 괴박과 교회로 인한 근심도 많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도 풍성하였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과의 가운데 사는 것이다. 최가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여 침전 회개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의식주의 열려, 건강의 열려, 경제의 열려, 사회 환경의 불안 등의 세상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파괴시킨다. 우리는 그런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절저히 미워하고 버리고 바로 살기를 결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사역자들에게 많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신다. 그것은 특별히 교인들이 주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교훈에 순종하여 범죄한 자들이 회개할 때 생긴다. 목사들은 많은 고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헌금

8장: 풍성한 헌금

8-9장은 헌금에 대한 교훈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작정했던 헌금을 실행할 것을 권하였다.

(1-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기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나 디살로니가 교회 등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와 4, 6, 7절에서 '은혜'라는 말을 헌금의 의미로 계속 사용하면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헌금하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헌금할 수 없을 것이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넘치는 기쁨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온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이다. 또 풍성한 헌금은 반드시 평안과 부요함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과 기쁨을 가진 성도는 누구든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4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혼대로 할 뿌 아니라 혼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헌금을 하되 혼대로 할 뿌 아니라 혼에 지나도록 하였다. 혼대로 헌금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혼에 지나도록 했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며 억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헌금의 용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헌금

위해서이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들을 주는 것, 즉 구제하는 일이다. 또 마케도나 교인들은 이런 구제 헌금에 참여하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그들은 헌금을 접스럽게 생각하여 회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헌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이다.

(5-6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줄어 우리에게 주었다. 이 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을즉 [그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마케도나 교인들의 헌금은 바울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마케도나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 뜻을 줄어 사도 바울의 진도 사역에 협력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헌신에서 비롯된다. 전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바치는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나 교회들의 행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해 헌금을 시작하였다.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그가 시작한 헌금을 마치게 하라고 권면한다. 그들이 헌금하기로 결심하고 소원한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실행치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작정한 결심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7-8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바울 일행을 사랑함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헌금

풍성한 헌금이라는 뜻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권한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포 열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풍성한 헌금은 믿음의 풍성한 열매이다. 바울은 풍성한 헌금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마게도나 교인들의 간절함을 들어 권면하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요일 3:18). 우리의 형제 사랑의 진실성은 구제와 선행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9절] [이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런 아들이며 부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죄인들 가운데서 자라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 그가 자신을 납수서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대속(代贖)을 위함이었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義)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의와 영생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12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오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타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고 원하기도 하였던 그 작성 헌금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하되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헌금

하고 없는 것을 무리하게 만들어 할 것은 없다. 빚을 내서 심일조를 하거나 다른 헌금들을 할 필요는 없다.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13-15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평균계 하려 합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이라.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헌금은 어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유여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 후에는 반대로 지금 유여한 자가 어려운 자가 되고 지금 어려운 자가 유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로의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성도들의 생활을 평균케 만드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세상을 살게 하셨다.

(16-19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니 저희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희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희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많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 같은 간절함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충성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디도가 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하다. 바울은 디도 외에 또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바울 일행이 많은 헌금의 일로 그들과 동행하는 자이었다. 바울은 그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했다. 한 교회에서 칭찬 받는 자가 되는 것도 귀한데, 모든 교회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헌금

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칭찬 듣는다는 말은 비교적 흔과 함께 없는 인격이라는 말이니 이런 자가 하나님과 일에 적합하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칭찬 듣는 자이어야 한다.

(20-21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막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혐박하지 못하게 하려 핀이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은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목적이에 전달하려 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였다. 그것은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하기 했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 없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것은 헌금을 취급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이다. 헌금을 취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행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서도 그러해야 한다.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처리됨으로써 아무에게도 비난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22-24절)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나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으므로 더욱 간절하리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partner][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사랑을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다.

새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의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여러 번 시험하였고 확인했다.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시험에 통과된 자이어야 좋다. 우리의 열심은 일시적이어서는 안된다. 참된 믿음과 충성은 여러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증거된다.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 파송되어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동료 요 동역자이었고, 그 외의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교회의 충성된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헌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이며 그들의 진실과 충성과 사랑은 주 예수의 영광을 반영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기를 바란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특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것은 곧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본장은 헌금에 대하여 교훈한다.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헌금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헌금의 용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즉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을 구제를 위해서이다. 거기에는 전도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이다. 셋째로,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할 만한 일이다. 넷째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의 몸 속에는 우리의 돈과 재물도 포함된다. 다섯째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헌금은 실행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헌금은 풍성하게 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소득의 십분의 일을 헌금하라고 명하지만 신약성경은 그 이상을 교훈한다. 일곱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 여덟째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에 근거한다. 부요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이 헌금할 수 있다. 아홉째로, 헌금은 할 마음만 있으면 내게 있는 정도대로 받으신다. 열째로, 헌금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평균하게 하는 것이다. 열한째로,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열두째로, 헌금은 교회에서 창전 든는 자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고린도후서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1-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볼 필요가 없다가 이
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약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
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본장의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한 것이었다(고후 8:4). 그것
은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었다. 고린
도 교회는 이 일을 원하였다. 교회의 헌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
이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원하였고
준비한다는 바울의 자랑이 마게도나 지방의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
들을 감동시켰다. 성도들의 선한 열심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
을 준다. 물론 감동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감동을 받아 자기들이 그 일에 동참할 선한 결심을 하게 되었
다. 다른 이들의 선한 행위를 본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3-5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
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
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
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리므로 내가 이 형제
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율로기
아 εὐλογία)(복) 답고 억지(플레오넥시아 πλευνεξία)(탐임)가 아니니라.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들을 고린도에 먼저 보낸 것은 고린도 교인
들이 1년 전에 작성한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반일 그들
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인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헌금에 관한 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된다는 것이다. 또 사람이 헌금할
고린도후서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때 탑심을 가지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된다. 그러나 헌금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준비해야 헌금답다. 특히 바울은 헌금을 복(율로기아 εὐλογία)이라고 표현한다. 구제 헌금은 받는 자에게도 복이요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복이다.

(6-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헌금을 심는 일에 비유했다. 농사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헌금도 그렇다는 것이다. 헌금은 많이 냄수록 복되다. 그는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만다면, 우리는 헌금을 억지로, 아까운 마음으로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바울은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한다. 그것은, 헌금은 사람의 마음의 선한 결심대로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답지 못하고 복되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분이 아니시다. 그는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즐거내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세상의 주인이신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바치는 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이란 실상 없다. 이 세상 만물의 참된 소유자는 창조자 하나님뿐이시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오백성이 바친 헌금과 헌물에 대해 하나님의 이렇게 말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고린도후서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물을 닦아 주의 손에서 왔시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대상 29:11, 14, 16). 이것이 바른 생각이다.

 더욱이, 하나님이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달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영생을 살 수 없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돈은 우리의 세상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사색하던 폭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색하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부를 드리는 헌금에 우리는 인색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할 일이다.

[8-9절]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치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흡수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 토록 두너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충만한 하나님의이다. 그는 그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선한 일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신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이므로 의(義)이다. 선행과 구제에 헌신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이웃들에 너그러이 돌이보는 의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의롭고 선한 열매이다.

[10절] 심는 자에게서를 먹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제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돈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님을 양식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심는 일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남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물질적, 영적으로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심을 것도 풍성하게 주신다. 그것은 전도와 구제의 헌금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영적 먹고 살며 필요한 것을 사고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와 구제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11-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로 헌금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가 돌려지게 하신다. 특정한 대상을 위해 바쳐지는 후한 구제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할 뿐 아니라, 구제받는 자들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섭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은, 헌금이 헌금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선한 행위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이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해도 마음으로 순종치 않는 자는 참으로 의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창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자신의 소망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세(來世)에 두는 자가 아니고서는 물질 사상과 탐심을 참으로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세상과 돈을 정말 버린 자만이 전도와 구제를 위해 후한 헌금을 즐거이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즐거이 드리는 후한 헌금은 헌금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히 믿는다는 표가 된다.

[14-15절]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9장: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우리는 성도의 헌금을 통해 헌금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본다. 즐거이 드리는 후한 헌금은 그것을 보는 이, 그 일을 듣는 이로 하여금 ‘오 주여, 그에게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돈 귀한 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헌금을 즐거이 할 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늘라운 은혜가 역사상 땅 위에 곳곳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난다.

8장에 이어, 본장도 헌금에 대해 교훈한다. 첫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헌금답다.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여 해야 한다. 둘째로, 헌금은 복이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리는 복된 선물이다. 셋째로, 헌금은 심은 만큼 거둔다. 많은 헌금한 자는 땅 위에서도 많이 거둘 것이다. 넷째로,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시다. 우리는 먹히는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다섯째로, 헌금은 우리에게 의가 된다. 그것은 창조자와 구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의의 열매이다. 여섯째로, 우리에게 주신 돈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먹을 양식이며 또 하나는 심을 심이�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심을 심는 우리가 먹지 말고 싶어야 한다. 우리는 먹을 양식 외에는 점도와 구제의 일을 위해 싼어야 한다. 일곱째로,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진실함의 증거이다. 여덟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하나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 결코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

(1-2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프라오테스 
πραυτης)와 관용(에피에이케 
ἐπιείκεια)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후서 10-12장은 그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할 때 겸손했고 말한다. 그는 고린도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대했었다. 지금 그들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화함으로 그들을 권하며 견행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다. ‘육체대로(사르키코스 σαρκικῶς) 행한 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오직 인간 본성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육식과 명예심을 가지고 행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육체대로 행한다고 비난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잘못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들에게는 겸손과 온유한과 온화함으로 대하려 하였으나, 자신을 그릇 되어 비난하는 자들을 항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대하려 하였다.

(3-4절) [이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느냐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니함이라. 이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 나님 앞에서(토 데오 θε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KJV) 견고한 진을 파하 는 영력이라]의 견고한 진을 파하 는 영력이라.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육신적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

즉 세상적인 욕심과 명예심이 아주 없지 않겠지만, 주의 종들은 육체 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즉 그들은 세상적 욕심이나 명예심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바르고 순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복음 사역은 사탄과 악령들과의 전쟁이며 악한 자들과의 전쟁이다. 그때 복음 사역자들의 무기는 육신적 힘이나 육신적 지혜와 생각이나 세상적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능력이다. ‘건고한 진’은 사람의 생각을 가리킨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무지하고 불경건한 생각은 매우 완고하다. 그것은 건고한 진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신다.


(5-6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님께서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론들, 즉 세상의 잡다한 사상들을 다 파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이며(잠 1:7; 9:10)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길이다(요 17:3).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 인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복음은 죄인들의 구주의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소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

식이다. 죄인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 온전히 된다는 말은 복종의 정도 즉 성화(聖化)의 정도를 나타낸다. 복종에는 부족한 복종이 있고 온전한 복종이 있다. 그것은 불순종하던 옛 사람의 요소들이 죽고 순종하는 새 사람의 요소들이 사는 과정이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외모로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외모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들에 있지 않고 그의 내면성, 즉 그의 영적, 신앙적 상태에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성을 보려고 해야 한다.

[8-11절] [이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게 하니 저희 말이 그 권세들은 종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나님이 이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하지 않게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권위는 교인들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것이다. 주께서는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에게도 영적 권위를 주셨다. 그것은 영혼들을 죽어서 건져내고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권위이다. 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목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어
몇 이들은 바울에 대해 그의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울을 약하게 보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고 보는 것은 그의 외모만 본 것이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의 풍성한 진리들이 흐르고 있었다.

(12-14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자회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분량 밖의 자리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교회 안의 어리석은 자들, 아마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 비교하고 평가하며 칭찬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들과 감히 비교될 수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이방세계에 전하다가 고린도에까지 갔던 것이므로 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한계에 맞는다. 다른 이들은 물론도 그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은 그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15-18절) 우리는 날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 대하여지기를 너희에 의해 풍성히 넓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날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 너희에 의해 풍성히 넓어진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자랑과 전도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자리는 주님밖에 없고, 주의 은혜와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

주의 능력밖에 없었다. 참으로 주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은 주께서 청찬하시는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청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 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과 선한 인품을 가진 자는 참으로 주님께 청찬을 들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이나 교회 봉사에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 3-4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것이나,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마귀의 시험과 사람의 연약한 모든 일들을 잘 물리쳐 나갈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5-6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이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모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며 참된 성화이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11장: 고난의 수고

1-15절, 거짓 사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였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사역을 중매하는 일로,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 간에 중매하는 일로 표현하였다.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 정결해야 한다. 그들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3절] [그러나] 뱀이 그 갣께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항하는 진실함(하플로테스, ἀπλότης)과 깨끗함(전통사본에는 없음)8)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변절과 부패이다. 사탄은, 옛날 에덴동산에서 그 갣께로 이와[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오늘날도

8) Byz vg syr" arm Clement Origen" 등은 생략함.
성도들을 미혹케 하려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을 버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를 향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성경에 증거된 대로 끝까지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4절) [이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용납함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파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다른 예수’는 신약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이다. 성경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십일 만에 승천하시고 장차 하늘로부터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이다. 이름만 같지, 실제로는 다른 자이다.

‘다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아닌 영이다. 그 영은 사탄과 악령들이다. 그것은 거짓과 불결과 혼돈의 영이다. 그 영에 게서 다른 사상이 나온다. 우리는 아무 영, 아무 사상이나 받지 않아야 한다. 성도들은 영의 출처와 소속을 분명해야 한다(요일 4:1).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 그들이 선포하고 해설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 외의 복음을 가리킨다. 실상,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다.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회의 교훈도 다른 복음이다. 이쁨을 사랑하고 선을 베푼다는 삶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도 다른 복음이다. 속죄 진리 를 무시하고 기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도 다른 복음이다.
우리는 사도의,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의 바른 교리와 신앙과 삶을 보수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군게 믿고 지켜야 한다. 우리는 신구약성경이 증거하는 그 옛신앙을 가지고 그 옛신앙을 지키고 그 옛신앙을 전해야 한다.

(5-6절) [이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아니함이니] 이는 내가 비록 말에는 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거짓 교사들은 원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 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말 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지식이 말보다 중요 하다. 사람이 말도 잘하면 좋겠지만, 말은 이별이나 위선이나 이중적 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다.

(7-8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料) 후원, 후원금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한 것은 그들을 존중하여 자신 을 낮춘 것이요 하나님은 복음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전한 것이 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은 것이었다. 그 는 다른 교회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한 다. 물론 그것은 탈취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그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것이니 그것을 탈취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사도 바울의 이런 행위가 죄 (罪)인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이요 사랑이었다.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까치지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아니함은 마케도니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나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문 동안 물질적으로 유유했던 것이 아니고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누를 키치지 않았다. 그것은 마케도니에서 온 형제들, 즉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부족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일에 고린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조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 것은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도 벌 수 없다. 결국 그도 속으로는 물질을 구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비난을 하려고 하였다. 이 악한 자들은 바울을 비난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회를 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한 믿음과 참된 사랑의 동기로 전도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13-15절) [이것]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군종의 역꾼이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僞裝)하는 자들이니라 자들임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황영의 천사로 가장(僞裝)하니 그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僞裝)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실상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저런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僞裝)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탄의 종들이 의의 일꾼으로 위장(僞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이다. 그러나 저 악한 종들의 결말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정결한 처녀같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사탄은 사도 시대 이후 줄곧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을 전해왔다.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가장 조심하고 오늘날 각종 이단사절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계명 순종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복음사역자들은 교회 봉사할 때 물질적 이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에 페를 끼치지 않으려 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초월한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결말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공의의 징벌로 보유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16-33절, 고난과 수고를 증거함

(16-20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가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라 하거나 빚을 철자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도 육신적으로 대하려고 한다. 잠언 26:5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고 말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저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했다. 거짓사도들은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 자기의 왕국을 건립하려는 자들이었고, 교인들을 잡아먹듯이 그들의 재산과 돈을 삼키는 자들이었으며, 교인들을 사로잡아 속이고 이용하고, 또 자신들을 높이고 교만하며, 심지어 교인들을 욕치르고 구타하며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이었다.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거짓 사도들, 그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여 참고 용납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대해 대답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답하여 자신도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이라고 말한다. 또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했다. 거기에 담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증거한다. 그가 받은 많은 고난과 수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구하지만, 참된 일꾼은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다.

\[23b-27\]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떨[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一晝夜) 하룻밤과 하루 낮, 즉 만 하루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졸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는 옥에 도 여러 번 갇혀있다.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는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신명기 25:3은 “사심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어 과다히 때리면 내가 네 형제로 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고 말했다. 또 바울은 몽둥이로 매를 맞은 것이 세 번이었다. 또 그는 한 번 돌로 맞았다. 그것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사도행전 14: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처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치라.”

또 그는 전도여행 중 세 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일이 있었고 한 번은 만 하루를 꼬박 깊음에서 지냈다. 그는 전도여행에서 여러 번 강을 건너는 위험, 강도들의 위험, 유대인들의 꺼박의 위험, 이방인들의 꺼박의 위험, 또 도시 안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수고

위험을 당했고, 게다가 저짓 형제들이 있어서 그를 악하게 비난하고 해치려는 위험도 있었다. 또 그는 수고하며 애쓰며 피곤하도록 고생 했다. 또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때도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먹지 못하고 굶었다. 또 그는 따뜻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여 추위에 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진도 사역의 여정에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었다.

(28-33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꼭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나의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느님이 나의 거짓말 아나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 다 왕의 방책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새 내가 광주의를 타고 들창 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옥에 갇혔고(행 5:18) 채찍질을 당했다(행 5:40).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했다(계 1:9). 또 스테반 집사 는 돌에 맞아 죽었고(행 7:58-60), 남녀 신도들도 옥에 갇혔다(행 8:3).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하자. 첫째로, 고난과 수고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수고는 그가 참되고 충성된 사도이며 그가 전한 구원의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한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신 영혼들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심함을 증거할 것이다.


셋째로, 고난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클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를 인해 육과 핍박과 악한 비방을 받을 때 복이 있으며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12장: 사도의 표

1-10절, 육체의 가시


(3-4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이로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셨다. 예년은 일찍이 그 곳으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그 곳으로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곳으로 올라가셨다. 의인들의 영들이 지금 그 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기업이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것은 그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은 그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즐어야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 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인격적 의사 소통을 가질 것이다. 천국은 확실히 대화가 있는 사랑의 세계일 것이다. 사도의 자격 요건의 하나는 주께서 자신의 뜻을 그에게 게시하신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분명히 거짓 사도들이다. 오늘 날 성경을 즐겁게 강해하거나 강론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들을 전하는 목사는 확실히 거짓된 목사일 것이다.

(5-6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여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힌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과 계시를, 자기 몸 안에 있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있던지 혹은 자기 몸 밖에 있었던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말한 것(2-3절)은 자신의 사도직의 변증을 위해 부득이 하는 자랑이었기 때문에다. 이 간증은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고 ‘참말’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보거나 자신의 간증을 듣는 자들이 무엇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정도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놀랍고 중요한 계시들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았다. 여기에 주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들, 즉 열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고 신약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있다. 사도 시대 이후의 목사들은 사도들과 분명히 다르다. 목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신구약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목사들의 권위는 바르고 충실한 성경적 설교와 교훈에만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8-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가 제거하실 수 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이다(대하 16:12). 의술은 제한적이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긍휼과 치료를 간구해야 하며 (약 5:14-16) 그 후에 의사의 치료도 감사히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 번 간구했으나 거절되었다. 거절하심도 일종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자주 다르다. 우리의 최선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섭리하심에 우리 자신을 항상 의탁하여야 한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이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조금만 편안해도 해이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계와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정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정도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계와 훈련 속에서 완전을 향해 더욱 잘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을 통해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는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그의 일을 이루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일도 약해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충만히 나타님을 깨달았 다. 즉, 그가 약할 때가 곧 그가 강할 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약함들, 곧 많은 고난과 수고와 육체의 가시까지 간중하고 자랑하기 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그의 일을 헌팅이 이루신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바울의 사도직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 당했음을 통해 증거되었음을 뿐 아니라, 그가 받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도 증거되었다.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방법이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인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순종하자.

둘째로, 우리는 셋째 하늘 곧 낙원의 영광을 사모하자.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길이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국을 확신하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의 낙을 든든히 두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종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교만치 않고 겸손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그들을 거룩함과 겸손과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은 성화와 온전함을 위해 유익하다.

넷째로, 하나님과 능력은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온전히 나타났다.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고난과 연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11-21절, 사도의 표와 바울의 주관심

(11-12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나 내 가 너희에게 청천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아니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을 말한 것이 어리석은 자랑임을 말한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요되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가 부득이 한 자랑이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12절) 본문[men (KJV)]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참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사도의 표들은 모든 참음 가운데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에 의해 행해졌도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표가 특별한 환상들을 본 것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임을 말한다. 사도들은 주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이며 특히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분증,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와 같았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침례된 선지자들이 가졌던 표와 같았다.

(13-14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내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적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공평치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잘못된 불공평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불공평이었다. 폐를 끼칠 수 있는 자가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사랑이지 인격적 결함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과 봉사의 삶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재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이었다. 천하보다 귀하 고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다(마 16:26). 또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재물을 저축하듯이, 바울은 성도들 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그의 재물도 사용했다. 물질적 이익을 초월한 교훈은 진리의 교훈이다. 하나님을 모른 자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밖에 모른다. 물질적 이익은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들을 초월한다. 교인들에게 물질적 폐를 끼치지 않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참된 종이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켠고 그는 그들을 위해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려고 한다. 주 예수님이 그의 종들은 바로 이런 길을 가셨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세적,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가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심심을 받기 위함이 아니셨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시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16-17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음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궤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利)를 취하더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역했지만, 비난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하는 자들은 그가 간교한 속임수로 교인들을 취하였다고 말했다. 그 비난은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말이었다. 바울의 경우처럼, 주의 종들에게는 그들의 선한 봉사의 결음에 때때로 악한 비난의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의 차이는 분명하다. 거짓 일꾼은 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의 것들과 물질적 이익만을 구한다. 그러나 참 일꾼은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신 존귀와 영광을 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소비하고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수 있다.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정신을 가졌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였다. 그 정신과 그 결음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오,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강자 온 세상 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목사와 성도들의 정신과 겉음이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과 보조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이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변명은 단지 자기 변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런 의미뿐이라면 그가 그렇게 변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자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변명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이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하고자 한 일은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복음사역자들의 관심은 영혼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 곧 영적 성장뿐이다.

(20-21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가 내가 너희 앞에서 낫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 하노라.

사도 바울의 주관심은 그들의 회개이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책망의 얼굴로 가 아니고 사과와 기쁨의 얼굴로 대하게 되기를 원했다. 또 그는 그들이 회개하여 다툼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 짓는 것이나 중상함이나 수군수군함이나 거만함이나 어지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랐고, 또 그가 다시 그 곳에 갈 때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을 원했고, 또 이전에 범죄했던 자들이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뿐 아니라, 이제는 서로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은밀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그린 참된 믿음과 변화된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도의 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다. 12절, “참으로 사도의 표들은 모든 참음 가운데서 표적들과 기사

- 91 -
고린도후서 12장: 사도의 표


둘째로, 사도 바울의 주관심은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고 교인들 자신이었다. 14절,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들이다.” 바울은 그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들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는 그들에게 폐를 깨치기를 원치 않는다. 그의 동역자들도 동일한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였다. 기독교는 단지 현세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관심은 죄 문제의 해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문제, 영생과 천국의 문제에 있다. 그것은 영원한 평안과 행복의 문제이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주관심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덕을 세움, 즉 그들의 성화와 온전함이 있다. 이것은 모든 전도자와 목회자들의 주관심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며(딤후 3:17),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들을 주신 목적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엡 4:11-12).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운 고린도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말씀의 사역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또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 그는 편지로 교훈했고 또 지금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권면과 축도

13장: 권면과 축도

1-7절,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티여니 두세 증인의 임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티여니”고 말한다. 그는 첫 번째는 그가 소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소위 2차 전도여행에서 유럽 전도를 시작할 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대살로 니가와 베뢰아에서 전도했고 또 그 후에 아가야 지방의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다. 고린도에서의 그의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 곳을 떠난 후, 고린도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듣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었다. 그 편지의 끝부분에서 그는 마케도냐를 지난 후 다시 그들에게 나아가서 겨울을 지날 뜻을 보였었다(고전 16:5-6).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초두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고린도로 갔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또 다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유대로 가려고 하였으나, 고린도를 떠나 마케도냐로 간 후 다시 고린도로 가지 못하였음을 말했다(고후 1:15-16, 23). 그는 가지 못한 대신에 많은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썼었다(고후 2:4). 아마, 그의 두 번째 방문 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어떤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떤 교인이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작지 않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다. 고린도후서는 이런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목적도 가지는 서신으로 쓰여졌다고 보인다.

그는 이제 세 번째 그들에게 갈 예정이며 이 일은 두세 증인의 임
고린도후서 13장: 권면과 축도

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확정할 때 한 증
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고 규정했다(신 19:15).
그리스도인은 법사에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
의 진실성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나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와 같이 전에 죄죄는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
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면 죄를 회개치 않는 자
들에 대해 징벌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한다. 사도 바울의 주관심은
죄 문제이었다. 하나님과 주관심도 죄 문제이다. 우리의 주관심도 죄
문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죄 문제이며 범죄자들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해야 한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를 회개하
고 죄죄음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끈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
고 그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약한 모습만 보았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결코 악하지 않
으시고 오히려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도 주께서
는 주의 신실한 종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비록
주의 종들이 외적으로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하지 않으시고 강한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연약한 외모만 보지 말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혀서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참으로 약하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은 사람들 눈에 약해보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종들의 능력이 되시며 그들을 통해 능력으로 일하신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한다. 또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들 속에 계신다.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가진 인격자로서 그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神性)의 영으로는 지금 그를 믿는 성도들 속에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버리운 자일 것이다.

(6-7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약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음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13장: 권면과 축도

8-13절, 권면과 축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거슬러 행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만 위하고 진리대로만 행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였고 또 계속 그러하기를 원한다. 마귀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만 위하고 진리대로만 행하고 진실만 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악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몸의 죄성이 남아 있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의를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성화(聖化)의 과정이다. 성화의 목표는 도덕적 완전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고 또 자신도 애써야 한다. 바울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편지를 썼다. 만일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도의 권세로 그들을 징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모든 부족과 연약을 회개하고 고침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11-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생각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셋째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자이시다(고후 1:3-4). 특히 그는 책망의 편지로 인해 근심하며 회개했던 자들과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위로한다.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언된다.
고린도후서 13장: 권면과 축도

넷째로, 그는 “생각을 같이하라”고 말한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고 거짓 교수들을 인해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같이하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일치단합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섯째로, 그는 “평안하라”고 말한다. 평안은 죄짓음의 구원에서 오는 큰 복이다. 이 평안은 성도 상호간의 화목을 포함한다. 지상에서의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문안과 화목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화목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라(벧전 1:2; 벧후 1:2). [아멘]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하신 은혜이다. 그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을 씻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사랑이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택자들에게만 제한되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 곧 영화의 단계에까지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9) Byz D lat syr cop보 등.
크고 놀라워 아무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重生)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과 의를 위해서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신앙생활은 성화(聖化)의 과정이며 그 목표는 도덕적 완전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힘써 달을질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 슬픔과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천국과 영생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위로를 받고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인간의 삶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생각과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늘 사모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때가 되어서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복 주심을 받으며 더욱 사모하며 누리자.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예큐메니칼운동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고린도후서 강해
2000년 1월 30일 1판
2021년 1월 12일 2판-수정중
저 자 김효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hj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옛신앙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6판]. 204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6,000원.
3. 김효성, 예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의 비평. 193쪽. 6,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6판]. 44쪽. 2,000원.
10.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응호. 166쪽. 4,000원.
11.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13.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14.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15. 김효성, 레위기 강해. [2판]. 164쪽. 4,000원.
16.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17.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8.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19.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판]. 233쪽. 4,000원.
20. 김효성, 열왕기 강해. [2판]. 217쪽. 4,000원.
21. 김효성, 역대기 강해. [2판]. 256쪽. 5,000원.
22.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23. 김효성, 혹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24. 김효성, 시편 강해. [2판]. 704쪽. 10,000원.
25. 김효성, 잠언 강해. [2판]. 624쪽. 8,000원.
26.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7.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3,000원.
28.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29.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30.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31. 김효성, 소신자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2.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3.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34.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35.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6.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2판]. 239쪽. 4,000원.
37.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38.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39. 김효성, 갈라디아서 예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40. 김효성, 빌리보서 골로세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1. 김효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문서 강해. [2판]. 92쪽. 3,000원.
42.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2판]. 109쪽. 3,000원.
43.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44.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5.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c.net
☆ 계좌: 농협 301-0258-7000-8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정동교회